

Sermon Notes:

서론: 불신앙의 죄 -> 단계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로 빠짐

본론: 불의

1. 불의

- 가.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악
- 나. 십계명의 5-10 계명과 관계된 죄악

2. 불경전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

- 가. 떨절
- 나. 방치 (v.24, v.26, v.28 의 ‘내어 버려 두사’)

3. 3 가지 내어 버려 두심

- 가. 더러움에 (v.24-25)
성적인 타락과 drug vs 하나님만 경배
- 나. 동성애에 (v.26-27)
교회와 가정에도 침투, 하나님의 처벌: AIDS
- 다. 죄악에 (v.28-32)
21 가지 악덕의 목록 + 악을 정당화하고 부추김

4.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

- 가.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불러주시기 때문
- 나. 믿음의 자녀들을 죄에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

결론: 우리 모두 죄에서 온전치 못함을 절감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의 삶을 사십시오!

암송구절: 로마서 1 장 24 절

‘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’

Memo/Reflection:

1. 죄악의 목록에서 알고서도 계속 짓는 죄는 없는가?
2.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?
3.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가? 노력만큼 나아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?